



'Sea of sound 1001'

## 들릴 듯 들릴 듯 '소리의 바다'

박구환 판화전 11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

복판화 소묘기법으로 서정적인 화풍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 박구환씨의 작품전이 오는 11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린다.

박씨는 10여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주제 '소리의 바다(Sea of sound)'와 '바람'을 같이 하는 300호, 200호짜리 대작 15점을 선보인다.

그는 기존 판화의 규모를 뛰어넘는 대작을 통해 바다가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삶의 정취, 감흥을 새롭게 전달한다.

이같은 느낌은 소묘기법에서 나무 결이 주는 투박한 미감과 작품의 주조를 이루는 파스텔톤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비롯된다. 작가의 작업을 통해 소리의 세계는 다시 시각의 언어로 치환돼 화폭에 펼쳐진다.

거법상 파고, 닳고, 조개서 찍어낸 화면임에도 판화에서는 그려낼 수 없는 색채의 다양성과 정확성에서 매우 회화적이다. 이는 재료에 대한 탐구와 많은 실험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장인적 기질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박씨는 뉴욕, 동경, 서울, 광주 등지에서 이십여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한국미술, 그룹 소나무, 광주현대판화가 협회회원, 조선대강사로 재직 중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디지털영화 워크숍 발표회

7일 광주영상예술센터 영화관

광주·전남미디어 행동연대(공동대표 고광연·김광훈)가 7일 오후 6시 광주영상예술센터 영화관(구 KBS)에서 '제5기 디지털영화워크숍 작품발표회'를 연다.

제4기 디지털영화워크숍 작품인 '겨울이야기(연출 송민주, 13분)'를 비롯해 지난해 디지털영화제작 강좌를 들었던 학생들의 작품인 '이사離離(연출 민병채, 7분)', '희망(연출 이광수, 5분 30초)', '하루(연출 고영일, 7분)', '바람꽃(연출 조대영, 18분)' 등 5작품이 상영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연출자와 관객의 대화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062-675-1895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 떠돌이 수행자 '바울'의 노래

(유랑하며 춤·노래로 수행하는 사람)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포엠 콘서트'에 한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은 사회자 박양희(39)씨를 기억할 게다. 인도풍의 독특한 의상을 차려입은 그녀가 콘서트에 초대된 수많은 시인들이 제 집 안방에서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이야기 풀이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다. "인도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 그녀와 랜지 락 어울리는 모습이기도 했다.

인도에서 8년간 머물다 '바울' 된 박양희씨  
며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바울'이 된 박양희씨는 최근

이름을 '나무(南友)'로 바꿨다. 그리고 바울의 노래를 연주하고 부른 음반 'VENARES'(인도의 지명 바라나시의 옛말)를 내고 8일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인도의 떠돌이 수행자 나무의 바울 노래-나무(南友) 콘서트'(무료 공연)를 연다. '바울'은 여기저기 유랑하며 춤과 노래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무리로 흔히 집시의 원조로 불린다. "바울은 산스크리트어로 '바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자기 안의 바람

을 사로 잡은 자, 바람에 미친 자 그런 뜻입니다. 흔히 바울은 '시 하나로 64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가사와 가락이 같아도 노래를 부르는 내 마음의 상황, '지극'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도의 전통

음악 음반을 출반한 그녀는 액파라, 두께, 팜뿌라 등 인도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백과아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수록곡은 '보네르 빠키 모네 에세(산새 한마리)', '고래리 짜비(마음의 열쇠)', '아무도 모르지' 등 모두 7곡. mp3 파일을 먼저 들어본 노래들은 사랑을 편안하게 해준다. 나즈막히 울조리는 목소리와 잔잔하게 깔리는 방울소리, 북소리는 듣는 사람을 고요의 바다로 이끈다.



'포엠 콘서트'의 사회자 박양희(39)씨. 8년간 인도에 머물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바울'이 된 박씨의 인도풍 의상이 잘 어울린다.

노래 '친구'와 '우리소리연구회'를 거쳐 '교두메'에서 활동했던 그녀가 인도로 떠난 건 1995년이였다. 고등학교 시절 네루의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을 읽은 후 수행 공동체인 '아쉬라'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품고 있었지만 정작 인도로 떠날 때는 별다른 계획도 없이 바람처럼 배낭을 메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되었다.

기 하더군요." 이 때 그녀는 느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현재'는 '내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품고 있었지만 정작 인도로 떠날 때는 별다른 계획도 없이 바람처럼 배낭을 메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되었다.

공연이 열리는 8일 오후2시부터 영상예술센터는 '작은 인도'로 변한다. 인도의 이상 입어보기, 인도문

8일 광주영상예술센터서 '나무 콘서트' 인도문화 체험하기·영화 감상 행사도

"타고르가 세운 학교에서 악기 등을 배우며 지내다 캄카타 인근에서 열린 바울 축제에 가게 됐어요. 우겨진 나무 아래서 이번 음반에 실린 '마음도 돌고, 바람도 돌고'라는 노래를 불렀고 높은 바울이 꽃꽂이를 걸어주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는 꼬박 하루가 걸려 114세된 노스승을 만나러 간 적이 있죠. 바울이 되고 싶다는 저에게 스승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

양 그리기 등 직접 인도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고 인도 악기 등 각종 인도 물품이 전시된다. 또 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인도카레, 인도 전통차인 짜이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공연은 임동산씨가 인도의 전통춤인 '까탁칼리'를 선보이고 임의진 목사, 현장 스님, 피아니스트 이상복, 한보라·오영목씨가 함께 한다. 공연·음반 문의 654-4364, 011-9439-82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아리랑 '격정만리' 15년만에 앙코르 공연

## 고난의 시대 헤쳐 온 광대들을 위한 진혼곡

막이 오르기 전까지 '격정만리'였던 극단 아리랑의 대하서사극 '격정만리'가 지난 1일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격정만리'가 '격정만리'가 됐던 것은 연출자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 이 작품은 교사와 기자에서 배우 겸 작가, 연출가로 변신한 '광대(廣大)' 김명근씨가 6년 간의 국립극장장직을 마치고 재야로 돌아오며 첫 기획한 희심의 역작이다.

김명근 문화부장관 기획작

올해는 그가 만든 극단 아리랑의 창립 20주년이다. 또 오늘날 한국 연극의 메카 대학로를 있게 한 아르코예술극장의 개관 25주년이다. 그래서 극장이 기획한 개관 25주년 특별기획 '극장만세'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이 작품이 선정

됐다. 대통령과 총리 다음으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문화예술행정가로 새로 자리매김을 한 김명근씨는 다시 연극판에 돌아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난해 12월 31일 극장장을 그만 두자 단원들을 소집, 하드 트레이닝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연을 한 달쯤 앞두고 연출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딱 하니 임명됐으니, 작품이 선장을 잃고 그야말로 '격정만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극단 대표 방은미씨를 비롯, 극단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격정'을 '격정'으로 채워, 대하서사극 '격정만리'를 완성해내 큰 박수를 받았다. 장관 직무수행으로 인해 첫 날 공연을 보지 못한 김명근 문화부장관은 2일째 공연을 보고 단원들의 '격정'을 치하했다.



공연무산 위기... '격정'으로 극복

이 작품은 한국 근대사의 격랑에 휩쓸린 신파극 배우 6명의 삶의 이야기다. 한국에 신파극이 처음 들어와 이것이 신극운동과 이데올로기 연극, 민족극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작품으로 보여준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신파극 '장항몽'에서부터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신극 '인형의 집', 카프의 경향극 '호신술', 악극 '사람에 속고 돈에 울고', 북한 집체극

의 원형인 '서울 갔던 아버지' 무쇠의 군악' 등이 이어졌다.

이 작품은 그 거칠고 무상한 세월을 이겨낸 '광대'들에 대한 한탄 진혼극이다. 한국 '광대'들이 '어릿광대'를 넘어 넓고(廣) 큰(大) 영혼으로 시대의 고통과 불화에 정면으로 마주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온 몸으로 감싸안고 실천한 상생의 창조자임을 웅변하고 있는 대하서사극이다. 16일까지. 02-762-9190

/공연칼럼니스트 김고우 papabon@naver.com

주경휘 귀국독창회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주경휘(사진) 귀국독창회가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주씨는 이번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실비아에게', '비밀', 슈만의 '눈방울꽃', 브람스의 '보람없는 세레나데' 울프의 '물요정의 노래', 니콜라이의 '이제 서둘러야겠어' 등을 들려준다.

전남에도 성악교사로 재직중인 주씨는 조선대학교 음악교육학과를 수석 졸업한 후 빈 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유학중 독일 가곡으로 2회의 독창회를 가졌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자산컨설팅의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구획  
Tel : 062)973-9174, 016-757-8800

**수완·신창·첨단지구**  
택지·상업용지 중개전문

구입상담  
주유소·공장, 총선소, 골프연습장, 병원, 복지시설 등  
대형사업용 부지  
매도상담  
대형 토지, 건물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중개합니다

첨단지구 상업용지  
100평 115평 150평 202평  
550평 600평 1100평 3000평 기타

수완택지개발지구  
협의남도인택지, 이주지역지  
생활대책용지, 상업용지 등

신창택지 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신가동 2차선집 2500평 3000평  
철학동 4차선집 1150평 농로집 200평

주유소  
1300평 15억

골프연습장 45억  
광주인근 녹지·사업용 부지  
주유소부지 890평 900평  
골프연습장부지 6500평  
물류·공정부지 2900평 2600평  
수안동 4차선 집 1100평  
신가동 2차선집 2500평 3000평  
철학동 4차선집 1150평 농로집 200평

전원주택부지  
도로·경관 최고  
담양 2000평 1900평

공장  
장성 3000평 해남공단 720평

호텔, 수익성건물  
공방

기타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장성·담양권 물건구함**  
매도 매수 교환 보유부식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02천만원~000여만원)  
062)973-9177, 011-625-1382

장성의 자존심!!  
**삼호센트럴타워**  
상가 분양 / 임대  
분양/임대 문의 ☎ 061)393-5550

▶ 총별 권장업종

01층: 대형마트 / 약국 / 패션잡화관  
02층: 패션의류관 / 전자 / 가전 / 컴퓨터관 / 미용실  
03층: 찜질방 / 고급시우나 / 웨딩홀  
04층: 클리닉센터 / 병·의원(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05층: 학원 / 소년회관 / 대안회관 / 볼링장 / 당구장  
06층: 전문식당 / 레스토랑 / 호프 / 성인음악 / 노래방 / DVD영화관

▶ 약도/방문상담환영!! (상가1층)

■ 방향을 모르는 장성의 랜드마크!!  
■ 토지 + 건물 즉시 등기이전 분양!!  
■ 노후대책으로 안전한 투자까지 확실!!  
■ 투자만 하십시오!!  
임대(월세)는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전통있는 상권지역에서 새로운 상권을 선택하여 지역의 대표건물 전문중함

국민지도  
http://www.hanmap.co.kr 국민지리정보(주)

◆ 최신정보수록, 3월 도시계획고시안 확정  
◆ 2006 광주광역시 지적, 임야 약도 판매중  
◆ 광주광역시 책자 50% 세일 10만원  
◆ 광주광역시 책자 포켓용 3만5천원

**전남전지역 지번도 판매**  
(매장방문시 사은품 증정)

• 광 주 지 사 : 062-385-0114  
• 목 포 지 사 : 061-284-7833  
• 순 천 지 사 : 061-744-0973

광주지사 위치: 상촌동 무진로 벼들마을앞

**중앙국토개발컨설팅**  
(현) 011-647-3500  
(광주지법법원 뒷편)

상가, 점포  
지산동 5층 상가, 대46평, 건 110평, 일건주거지역, 20m 도로, 교통양호, 1, 2, 3층 사무실, 4, 5층 주택, 매도 3억3천만원

원룸  
계림동 송선관광호텔 앞 원룸, 대지53, 건평 9440 구역, 차량출입용이, 계약이 호르고 전면에 거주지, 정남향 평방 12,000원

전원주택, 별장용지  
전남 나주 풍림리, 자연녹지, 880평, 평방20만원, 조경가

싼땅매매  
광주 남구 앞촌동 대촌중앙초교 건너(백간제 옆) 개발제한, 자연녹지, 840평, 평방20만원, 조경가

중고용 임야  
장성 북이면 원덕리, 25,195평,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구역, 차량출입용이, 계약이 호르고 전면에 거주지, 정남향 평방 13,088평, 자연녹지, 차량출입용이, 전기공급됨, 지내에 우수터 소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있음, 평방12,000원

도시용 임야  
화순 이십곡리, 너릿재와 검본소 사이 우수터 임야, 2500평, 평방 50,000원, 조경가

**GS부동산컨설팅**  
T. 572-7744, 9966  
(현) 011-607-9908  
(양산동 그린리더 컨설팅팀 앞)

상가임대

1층: 약국, 금은방, 안경점  
2층: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3층: 안과, 치과  
4층: 학원, 기타

양산동, 신개발지 중앙거리 코너 APT 5000여세대 밀집 지역 실권 최고

분양권매매

◎ 양산동 GS 그린리더

·35평형 분양가 1억5800 3600 납부, 최상층 남향 중건리인 매매가 1억7천

·42평형 분양가 2억500 1억2천 납부 16층 중건리인 맨앞동 전망최고

매매가 2억1천700만

·49평형 분양가 2억4200 1억5천 납부 17층 중건리인 남향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6천

·56평형 분양가 2억3천 2천800 납부, 풀옵션 10층 조망권 최고

매매가 2억8천8백

현전에버빌 다량 확보